

여행자의 시선 속 머무는 시공간

갤러리 생각상자 김창호 초대전 내달 14일까지 사진 26점 선배 “자신 삶 둘러보는 시간 됐으면”

여행 중 발견한 사물과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통해 늘 달콤하지만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김창호 사진전 ‘The Mirror(더 미러)’다.

다음달 14일까지 광주 동구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리는 김창호 작가(68)의 두 번째 개인전은 지난해 4월 프랑스 루앙과 파리 일대의 일상, 도심의 장벽 너머 바라본 시선, 낯은 사물 등을 찍은 흑백 사진과 지난 2019년 몽골 여행 중 렌즈에 담은 풍경 26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은 ‘mirror’다. 사진 속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백미러는 낡고 오래된 자동차임을 짐작케 한다. 흑백 사진임에도 곳곳이 벗겨지고 까인 질은 한 눈에 보여도 낯아 보인다.

김 작가는 “프랑스 루앙의 한 공터에 세워진 자동차의 모습은 처참했다. 낡고 누군가의 발길 질에 의해 자동차는 찌그러져 있었다. 그러한 자동차를 보니 내 모습을 보는 듯했다. 나 또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기도 했고 아픔을 겪기도 했기 때문이다.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는 의미에서 낯은 것에 집중하며 프랑스 곳곳을 걸어다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의 설명처럼 사진은 낡고 오래된 것에 집중했다. 벽에 붙어 찢겨진 어느 정치인의 포스터와 깨진 유리창의 파편, 먼지가 쌓인 유리 너머

흐릿하게 보이는 건물과 흙비가 묻어난 창문 너머 풍경, 창문에 물방울이 맺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 풍경 등을 통해 삶의 고독과 지나온 날들을 성찰하고 있는 듯했다. 새벽과 막동이 트는 순간을 포착한 ‘창’은 인생은 어김없이 반복됨을 알리는 듯했다.

김 작가의 또 하나의 직업은 액자장인이다. 작가들의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액자를 직접 수공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작가들의 삶과 가치관과 같은 개성이 담긴 작품을 25년간 봐왔던 김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렌즈 너머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광주뿐만 아닌 경상도와 프랑스, 몽골, 말레이시아,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며 독자적인 개성을 표

출하고 있다. 김 작가는 “액자 작업을 하며 작가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보게 된다. 그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성을 피기도 하며 개성을 그려내는 것을 보고 하나의 감정을 느꼈다. 30여 년간 취미로 했던 사진을 통해 나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품도 변화를 맞는다. 풍경과 인물을 위주로 했던 사진에는 삶의 애환과 같은 이야기를 담기 시작한 것이다.

김 작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아픔을 겪기도 한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회고했던 삶 속에서 발전의 계기를 찾기도 하며 위안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mirror’



‘흙비-우울한 날의 풍경’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신년 음악회

내일 오후 4시 미디어라운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 미디어라운지에서 두번째 신년음악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김정란·조남철씨의 아코디언·기타 연주와 백주영씨의 하모니카 연주, 박수아씨의 라틴가요·팬플룻 공연이 펼쳐진다.

GMAP은 뮤직스페이스 공감과 함께 GMAP 1층 별관 미디어라운지에서 신년 음악

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년 음악회를 공동 주최한 뮤직스페이스 공감은 2020년 9월 창단해 하모니카, 팬플룻, 요들송, 팝페라, 색소폰, 통기타, 아코디언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생활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고 있다.

세 번째 공연이 열리는 2월 4일에는 김용 씨의 대금, 강형선 씨의 색소폰, 문은주씨의 통기타 연주가, 마지막 네 번째 음악회인 2월 18일에는 장미정씨의 요들송, 한중호 씨의 하모니카 연주, 박원 씨의 팝페라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나라 기자

시립도서관 바로대출 서비스 내달 1일부터 1인당 월 3권

원하는 책을 가까운 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가 올해는 2월 1일부터 제공된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시민을 위한 신속한 자료 제공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협약서점은 ▲동구 광우서점·지엠북·책과생활·중앙서점 ▲서구 보람문고·새남서점·이호서점·한림서점 ▲남구 러브앤프리·예림문고 ▲북구 보보스문고·열린문고·초원문고 ▲광산구 시민문고 등 14곳이다. /최진화 기자

광주·전남혁신플랫폼, 문화유산 프로그램 진행

CBST 스마트관광 마스터클래스
내달 1일까지 참여 대학생 모집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지역사회혁신본부가 CBST(Community Base Smart Tourism) 스마트관광 마스터클래스 ‘우리 문화유산 다르게 바라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6일 밝혔다.

스마트관광 마스터클래스는 광주·전남 지자체 연계를 통한 문화유산 활용과 우수사례 프로그램 현장 체험 및 지역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

한 관광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지역 관광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1일 또는 1박2일 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상품화 방안을 찾는다.

이와 함께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역사, 생태, 예술적 관광자원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과 연계, 다양한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전남지역 15개 플랫폼 참여대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초까지 운영되며 2월 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최진화 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생산 품목	특징
<p>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p>	<p>[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 (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습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시점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품질보증

드림케미칼코리아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